

“첫째 누나가 영웅”...아마존 ‘기적생환’ 아이들 건강 OK

맹수 득실대는 죽음의 정글서 ‘원주민 지식’ 활용
자연 더불어 산 아이들...“서양애들이었다면 참사”

독사가 우글대는 아마존 정글에서 어
른도 없이 40일간 생존했다가 무사히
돌아온 콜롬비아 어린이 4명의 건강 상
태는 괜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신이
10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중앙군사병
원 관계자는 “종합적으로 검사한 결과
아이들은 생명에 위협받지 않고 임상적
으로 괜찮은 상태로 확인됐다”고 밝혔
다.

하지만 아이들이 영양·심리 치료를
받고 있으며, 회복하기 위해 2~3주간 입
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.

앞서 콜롬비아 군 당국은 전날 아마
존 정글에서 실종됐던 아이 4명이 생존
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, 헬리콥터와
특수 구급 항공으로 아이들을 보고타로
이송시켰다.

콜롬비아를 기점으로 들쭉여 한
‘기적의 아이들’은 레슬리 무쿠투이(1
3), 솔레이니 무쿠투이(9), 티엔 노리엘

로노케 무쿠투이(4), 크리스틴 네리만
라노케 무쿠투이(1)다.

이들은 지난달 1일 콜롬비아 남부 아
마존 정글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를
당한 지 40일째 되는 날에 무사히 발견
됐다.

앞서 아이들과 경비행기에 동승했던
아이들의 엄마와 조종사 등 성인 3명은
사고 15일째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된 터
였다.

콜롬비아 당국은 군인과 지역 원주민
자원봉사단 등 200여명과 탐지견을 동
원해 아이들 수색 활동을 벌였다.

수색대가 정글에서 어린이용 테니스
화, 기저귀, 젖병, 먹다 남은 과일 조각
등을 발견하면서 아이들이 살아있을 수
있다는 희망이 커졌다.

이후 수색대는 나뭇가지와 가위, 머
리끈 등으로 만든 임시 대피소를 찾아
냈고, 추락 지점에서 3km 정도 떨어진
곳에서 작은 발자국도 발견했다.



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이후 행방불명됐던 아이 4명이 40일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.

/AP=연합뉴스

아이들은 실제로 추락 지점에서 약 3
2km 떨어진 곳에서 구조됐다.

특수작전 합동사령부의 페드로 산체
스 사령관은 AP 통신에 밀림에서 아이
들을 수색한 작전에 대해 “예측할 수 없

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양탄자에
서 작은 벼룩을 찾는 것과 같았다”고 설
명했다.

아이들이 실종됐던 정글에는 재규어
와 오실롯 등 육식 맹수들과 독사들이

많이 살고 있었다고 전했다.

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존
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
다.

다만 4명의 아이 중 첫째 누나인 레슬

리가 동생들을 보살피며 생존에 핵심적
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.

페트로 대통령과 함께 아이들이 입원
한 병원을 방문한 이반 벨라스케스 고
메스 국방부 장관은 레슬리에 대해 정
글 지식을 이용해 세 명의 남동생을 돌
본 “영웅”이라고 칭찬했다.

아이들의 외할머니인 파티마 발렌시
아는 AFP 통신에 레슬리가 전사 같은
성격을 가졌고, 늘 동생들에게 숲에서
따온 과일을 주며 돌봤다고 말했다.

콜롬비아의 아마존 원주민 단체는 트
위터에서 “아이들이 생존했다는 것은
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우고
연습한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
는 것을 나타낸다”고 밝혔다.

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열대림
생태학 교수인 카를로스 페레스도 아이
들이 가진 숲에 대한 지식이 생존에 도
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.

그는 “같은 나이대의 서양 어린이들
이었다면 죽었을 것”이라며 “아마존 원
주민 아이들은 아주 일찍 성숙하고, 어
릴 때부터 숲에서 음식을 찾거나 동물
을 피하는 방법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
기술을 배운다”고 설명했다. /연합뉴스

日 후쿠시마 어민들 “오염수 방류 반대 절대 안 변해”

해양 방류 회담은 평행선...책임감 갖고 대책 마련 촉구

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후쿠시마 제1
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
(일본 정부 명칭 ‘처리수’)의 해양 방류
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현지 어업인
들이 10일 방류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
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.

원전 소관 부처장인 니시무라 야스
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후쿠시마현
및 후쿠시마현과 접한 미야기현과 이
바라키현 등 3개 현을 방문해 각 지역
어업단체 관계자와 오염수 방류 문제
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.

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“후쿠시마
제1원전 폐로를 진행하는 데 있어 처리
수의 해양 방류는 피할 수 없는 과제”
라며 “폐로를 진행하면서 어업을 계속
해 양립해 갈 수 있도록 대처하고 싶
다”고 말했다.

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방류 계획
진척 상황과 방류 시 후쿠시마산 수산

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에 대한 대
책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.

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지역 어
업인을 염두에 두고 수산물 판로 확대
지원과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로 수
요가 줄어드는 경우 냉동 가능한 수산
물 매입 사업 등에 사용할 300억엔(약2
천800억원)의 기금을 설치했다.

이에 대해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
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“회담은 평
행선이다. 방류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”
고 재차 강조했다.

그러면서 “후쿠시마 현민으로 폐로
관철을 바라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협
의를 하면서 길을 찾겠다”고 덧붙였다.

후쿠시마현 소마시의 후타바어업협
동조합 곤노 토시미즈 조합장 일행은
사흘 전인 7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니
시무라 경제산업상과 만나 “조합은 방



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.

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”며 “국가
가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줬으
면 한다”고 밝혔다.

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
사인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
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는 관계자
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

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.

하지만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이 이
달 중 방류 설비 공사를 마무리하고, 국
제원자력기구(IAEA)가 이르면 이달
중 내놓을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
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여름에 오염
수 방류를 강행할 방침이다. /연합뉴스

소말리아서 불발탄 터져 27명 사망·53명 부상

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불발탄이 터
져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
등이 9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소말리아 국영 뉴스통신에 따르면
이날 로우어 샤벨레 지역 코리오올리
마을 인근에서 박격포탄이 폭발해 최
소 27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다. 희생
자 대부분은 어린이들이었다고 전

해졌다.

현지 당국은 아이들이 박격포탄을
가지고 놀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
고 밝혔다.

현지 주민은 AFP통신에 한 아이가
놀이터 바로 근처에 있던 포탄을 건드
리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다.

/연합뉴스

캄보디아서 한국 여성BJ 숨진 채 발견

캄보디아에서 한국인 30대 여성이 숨
진 채로 발견됐다. 현지 경찰은 시신을
유기한 혐의로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다.

11일 라스메이캄푸치아 등 현지 매체
에 따르면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
놈펜 인근 간달주의 한 마을에서 붉은
천에 싸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한국 여
성의 시신이 발견됐다.

이 여성은 캄보디아 여행 중이던 인터
넷방송 진행자(BJ) A씨로 알려졌다.

캄보디아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
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검거했다. 이들은
지난 4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

은 A씨가 치료받던 중 갑자기 발작을 일
으켜 사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.

이들은 A씨의 시신을 차에 실어 옮
긴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캄보디아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한 수사
를 진행 중이며, 용의자 부부에 대해서는
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. /연합뉴스

방수제 · 바닥재 · 혼화제 ·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

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? 기술이 필요없습니다.

방수! 바닥! 직접 공사하세요!

적용현장 및 시공범위

옥상, 외벽, 지하실, 공장바닥, 주차장, 흙집, 물탱크, 양어장, 수영장, 화장실 타일, 기와집,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,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

생산 품목

[DK-301]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/ 드림탄²
[DK-303] 상도코팅방수제(녹색, 회색)셀프탄
[DK-305] 무색침투도막방수제 / 드림데칼³
[DK-307] 균열 보수제 / 다막스
[DK-306] 수용성 투명 방수제 / 탑코팅
[DK-308] 천연황토코팅제 / 황토리
[DK-5000] 광택증진 & 오염방지코팅제 / 오염스톱

특징

•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
• 기술이 필요없다
•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
• 경제적이다
•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
•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
• 미끄럼, 방지기능을 한다
•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
•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
• 소비자가 인정했다

※전화 문의시 방수·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.
(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.)

유사품에 주의하세요

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.
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.

특허청

환경을 생각하는 기업

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

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(무담보, 무보증)
문의 : 080-362-7788
www.dreamchemicalkorea.com

CMYK